

토요일, 집 밖은 축제다



지난해 열린 대인예술아시아장에서 극단 '도깨비'가 인형극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오늘 개막 공동 거리 예술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연계...대인 예술아시아장도 열려

오는 7일 광주의 대표 축제인 대인예술아시아장, 공동 예술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2018 공동 거리 예술축제 '어여쁘다 공동'은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모든 아름다운 순간은 여기에 있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2시~오후 7시)에 열리며, 다양한 행사로 꾸러질 예정이다. 이번 개막 행사는 오후 2시 원불교 광주본당에서 타종을 시작으로 머리에 꽃을 장식한 예술가가 춤을 추며 봄을 깨우는 지신무(地神舞)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페스티벌 축제 등과 연계해 시인, 예술가, 상인이 참여하는 3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거리공연, 새궁동유람, 예술체험, 예술심리치료, 아트마켓, 예술영화극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거리공연은 버블쇼, 마술쇼, 버스킹 공연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즐기기에 좋다. 새궁동유람은 보물찾기 지도를 들고 예술의 거리의 숨겨진 명소와 갤러리를 미션투어 방식으로 찾아가는 스탬프 갤러리 미션 수행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예술의 거리 장안당 등 48곳에서는 3D 프린팅, 팝아트, 플라워아트, 가족공예, 스트리트아트, 캐릭터 그리기 등 60여 개의 예술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더불어 14일에는 벚꽃을 담은 팝콘을 나누주는 '벚꽃파티'가 진행되며, 21일에는 자구의 날을 맞아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본다.

대인예술시장별장프로젝트는 '일소일소(一笑一少)'를 주제로 4월 별장에서 서사의 향연을 펼친다.

7일 남도전통춤가락의 전통무용을 시작으로 버블타이거의 매직쇼, 트로플제이 밴드의 어쿠스틱 영화음악이 열린다. 14일에는 신디매직의 마술쇼, 극단 좋은 친구들이 준비한 변사극, 광주수화동호회 누리촌의 수화공연이 진행된다. 21일에는 강진만연극단 구강구산의 음악극, 조성진과 김종일의 감성마임, 전라도 사투리로 삶을 이야기하는 극단 배우리의 연극무대가 준비돼 있다. 이어 감상광대 제로가 찰리체플린



지난해 공동 거리 예술축제에서 열린 공연 모습.

의 코믹마임과 저글링 쇼를 보여주며 드라마스튜디오는 퓨전마당극 '심청이 없는 심청전', 요술랩스는 풍선타고 동심의 세계로 떠나는 별문소로 이달의 행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갤러리에서는 오는 21일까지 두 번째 기획전과 아미전(AMIE)이 각각 열린다. 기획전은 '이야기가 있는 풍경'을 주제로 일상의 풍경에서 발견한 유년의 향수, 국내외 여행담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회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 전시에는 김수영, 노여운, 노영은, 박다혜, 양나희, 최종을 작가가 참여했다. 아미전은 '살을 담다'를 주제로 김영선 도예작가를 초대해 다양한 도자기 속에 담긴 느낌의 미학을 선보인다.

같은 날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거리에서는 오후 3시부터 '2018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아마추어에서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축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뷰 쇼'는 7일 오후 3시20분 전 일빌딩 앞 메인무대에서 20여 개의 공연 참가팀이 3~5분씩 공연 릴레이를 펼치며 총 7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팀이 연중 선보일 공연을 사전에 홍보하는 자리로, 국내외 공연자들의 거리공연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왼쪽)과 광주시립합창단의 모습.



광주시민에 먼저 선보인다

광주시향, 서울 교향악축제 앞두고 12일 문예회관

시립합창단 11일 '美 기념음악회- 프리뷰 콘서트'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서울, 미국 등에서 열리는 공연에 앞서 광주시민들을 위해 프리뷰 콘서트를 준비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2018 교향악축제 프리뷰 : 소네트'를 연다.

올해 광주시향의 교향악축제 프로그램 주제는 '소네트'이다. 소네트는 유럽 정형시의 한 형식으로 대부분 사랑을 소재로 한다. 마치 한 편의 소네트와 같은 음악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한 작품들을 만나 본다.

이번 공연에는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이 무대에 오른다.

합연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홍주영이 푸치니의 '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차이코프스키의 '에브게니 오네긴' 중 '이 길로 끝이라 해도, 황홀한 희망을 품고'를 노래한다.

홍주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중앙콩쿠르 3위, KBS 콩쿠르 1위, 프란체스코 비나스 국제콩쿠르에서 2위, 베르디 국제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했다. 2016년 국립합창단의 베르디 '레퀴엠', 2017년 마카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출연하는 등 국내외 여러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한편, 광주시향은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8 교향악축제 무대에 오른다.

교향악축제는 198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함께 해오며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 자리매김하고 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학생 50%). 문의 062-

524-5086.

광주시립합창단(사진)은 수시음악회 '미국순회연주 기념음악회- 프리뷰콘서트'를 선보인다.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공연은 임한규 지휘자의 해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무대로는 성가합창 베토벤의 '주 이름을 찬양해', 프랑스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룬스타드의 '할렐루야'를 선보인다.

이어 미국민요 '세난도야', 남성합창 '격정말야요 그대', 여성합창 '그리움만 쌓이네' 등을 무대에 올린다. 흑인영가 '내 마음속에 노래가',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그가 내길 예비하시네'도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의 정서에 담겨있는 한국가곡 '못 있어, 나물개는 처녀'와 민요 '경복궁 타령' 등으로 특유의 흥을 전하며 공연의 막을 내린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415-520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시인들이 뽑은 오늘의 시

신철규 '심장보다 높이'

시인들이 뽑은 '2018 오늘의 시'에 신철규 시인의 '심장보다 높이'가 선정됐다.

도서출판 '작가' 기획위원회는 100명의 시인, 문학평론가, 출판편집인들을 설문한 결과 신철규 시인이 작년 문학동네 겨울호에 발표한 '심장보다 높이'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작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오늘의 시'를 뽑아 책으로 출간하고 있다.

'작가' 기획위원회는 "이는 슬픔에 대한 시이기도 하고 외로움에 대한 시이기도 하며 공포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적이거나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중심으로 슬픔을 형상화했던 시집(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과의 연속선상에서, 이 슬픔은 역시 타자와 주체의 경험이 연동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ACC 어린이극장 상설공연 6편 선정

내일 오페레타 '황금용과 길동이'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오는 7일부터 8월26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에서 2018 어린이극장 기획대관 선정작을 선보인다.

2018 어린이극장 기획대관 선정작은 어린이공연개발 활성화와 관람환경의 일상화를 지향하는 어린이극장 상설공연으로, 쇼케이스 작품 공모를 통해 총 6편의 우수 공연프로그램이 선정됐다.

7일 황금 용과 길동이의 우정이야기를 오페레타라는 장르로 그린 오페레타 '황금용과 길동이'를 시작으로 ▲패쇄 위기에 처한 문학반 소녀들의 문학반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린 '자목련 필 무렵'(8일) ▲한복 치마로 표현하는 현대판 심청이 이야기를 담은 '양양의 심청이야기'(14~15일) ▲개성 있는 외모와 흥미로

운 비밀을 간직한 독특한 캐릭터의 광대가 들려주는 신비한 이야기 'The letters from the clown(클라운이 쓴 편지)'(21~22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가진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가족 간의 소통을 그린 뮤지컬 '한 때는 소녀였던 우리 할매'(5월 25~26일) ▲'평화의 소리' 풍물놀이 한마당'(8월 25~26일)으로 이어진다.

오페레타부터 전통 타악까지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된 이번 기획대관 선정작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해당 공연의 관람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 (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대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를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아 내를 위한 행사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연속선정 광주의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